



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정치가 되어야 함을 강조, 이같은 일은 여성적 시각이 가미되지 않고는 안된다는 점을 피력한다. 이와 더불어 박의원은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여성운동 당시 주요과제로 여겨왔던 가족법개정, 남녀고용평등법, 탁아법제정 등에 주력해 왔다. 이같은 법안들은 거개가 통과되었다고는 하나 정치적 흐름(?)에 따라 알맹이를 뺀 상태에서 통과되어 미흡한 부분들이 산재해 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기본적인 법안들을 합법화시키고 남녀구분 없는 동등한 사회건설을 위해 정치적 힘과 뒷받침이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여성의 힘을 정치세력화 해야

“여성의 힘을 정치세력화 하지 않는 한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때문에 여성들이 정치권에 진출해야하고 여성들의 힘을 조직화, 세력화하여 깨끗하고 바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지난 기초, 광역의회의 선거를 통해 익히 느낀 것이지만 현재의 선거풍토속에 자유경쟁을 통한 여성의 정치진출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적으로 여성유권자들의 각성이 이루어져야겠지요.”

박의원의 지적은 곧 이미 진출한 여성정치인들이 당론에만 치우친 활동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나

